

KIA 양현종, 현역 다승 순위 독주 체제 갖췄다

배영수 은퇴·김광현 메이저 진출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이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좌완인 양현종(31)이 현역 다승 순위 독주 체제를 갖췄다.

양현종은 2007년 KIA의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고 프로에 데뷔했다. 2009년 12승을 따내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올 시즌까지 통산 136승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20승으로 다승왕에 오르며 팀의 통합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양현종의 136승은 통산 다승 공동 6위다. 양현종과 프로 입단 동기인 SK 와이번스 김광현이 136승으로 나란히 공동 6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 위로는 송진우(210승), 정민철(161승), 이강철(152승), 선동열(146승), 배영수(138승) 등 5명뿐이다.

배영수(38)가 올 시즌 두산 베이스의 통합 우승 '헝가리 투수'로 명예롭게 은퇴하면서 양현종과 김광현이 현역 다승 1위에 올랐다. 여기에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당분간 현역 중 양현종의 통산 승수를 위협할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

양현종의 뒤를 쫓는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38)이다. 135승으로 양현종에 1승 뒤져 있다. 그러나 윤성환은 양현종보다 7살이 많고, 최근 성적이 급하락했다. 지난해 5승, 올 시즌 8승에 그쳤다. 그 2년 사이 양현종이 13승, 16승을 추가하며 윤성환을 앞질렀다.

그 뒤로 현역 선수 중에는 두산 베이스 장원준(34)이 129승을 기록 중이지만 장원준 역시 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3승만을 추가했다. 내년 시즌 역시 많은 승수를 쌓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현종은 '레전드 선배'들의 기록을 바라본다. 당장 내년 시즌 11승을 추가하면 선동열을 넘어 통산 다승 순위 4위에 오른다. 송진우의 통산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울 선수도 현재 로션 양현종뿐이다.



◇통산 다승 순위(*현역)

- 1위 = 송진우(한화) 210승
- 2위 = 정민철(한화) 161승
- 3위 = 이강철(KIA) 152승
- 4위 = 선동열(해태) 146승
- 5위 = 배영수(두산) 138승
- *6위 = 양현종(KIA) 136승
- *6위 = 김광현(SK) 136승
- *8위 = 윤성환(삼성) 135승
- 9위 = 김원형(SK) 134승
- 10위 = 임창용(KIA) 130승
- 11위 = 장원준(두산) 129승
- *18위 = 장원삼(롯데) 121승
- *23위 = 송승준(롯데) 107승
- 25위 = 차우찬(LG) 105승

“강정호, 피츠버그서 잠재력 발휘 못해”...美 매체 혹평

디 애슬레틱 “피츠버그 3루, 흠 많은 선수들 모여”

강정호(32)가 미국 현지 매체의 혹평을 받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2010년대 포지션별 대표 선수를 꼽았다.

3루수 부문 대표 선수로 페드로 알바레스를 선정한 가운데 강정호에 대해선 짧게 언급했다.

디 애슬레틱은 “피츠버그 3루수 흠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포지션”이라며 “데이비드 프리스는 투지는 있지만 풀타임 선수가 아니었고 강정호는 그의 잠재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강정호는 2015년 피츠버그에 입단해 그해 126경기에서 타율 0.287

15홈런 60득점 58타점을 기록,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2016년에도 타율은 0.255로 살짝 떨어졌지만 21홈런을 쳐내며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미국 복귀가 어려워졌고 2017시즌은 통째로 날려버렸다.

2018년에는 마이너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가까스로 복귀해 3경기에서 뛰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장타력을 믿고 올해 재계약을 했지만 끝내 방출됐다. 강정호는 올해 65경기에서 타율 0.169 10홈런 24타점 15득점을 남겼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는



이달말 대학원생인 재미교포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다.

디 애슬레틱은 3루수 대표 선수로 뽑은 알바레스에 대해선 “2013년 36홈런을 치며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통산 131홈런으로 역대 구단 최다홈런 기록 13위에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KBL 심상치 않은 인기? 시청률-관중 증가 ‘고공행진’

시청률 53% 상승, 조회수 3배...총 관중도 23% 증가



프로농구 인기가 회복세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시청률, 포털 사이트 검색 동시 시청자 수, 영상 조회수, 관중 수 등 다방면의 지표가 상승했다.

‘2019-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의 중계권사인 스포티비(SPOTV)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시즌 달라진 인기 척도를 설명했다.

먼저 현장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관중 수가 크게 늘었다. 올 시즌 75경기에서 14만2837명을 불러모아 경기당 평균 3174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대비 23.5

% 증가한 수치다. 평일 일정을 줄이고 주말 경기를 늘린 KBL의 전략이 들어맞은 결과다.

시청률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올 시즌부터 5년 간 KBL 중계권을 구매한 스포티비에 따르면 개막 후 75경기 평균 시청률은 0.174%(전국 가구, 닥스코리아 기준)다. 이는 지난 시즌 동일 시점 0.114%와 비교해 무려 53% 상승한 시청률이다.

새로 도입된 재미 요소들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경기 중 감독들의 목소리를 생생

히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오브 KBL(Voice of KBL)’에 유도훈 인천 전자랜드 감독, 서동철 부산 KT 감독이 참여했다. 라커룸 캡틴 ‘인사이드(INSIDERS)’ 역시 현장의 박진감을 생생히 전달한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화하면서 포털사이트 생중계 시청자 수 및 영상 클릭 조회수도 인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떠올랐다. 이 수치들 또한 KBL 부흥의 조짐을 증명하고 있다.

포털 생중계에 접속한 시청자들은 지난 시즌 평균 2만1832명에서 올 시즌 3만4588명으로 경중 뛰었다. 지난 시즌 1라운드 45경기에서 총 763개의 영상이 업로드돼 약 28만회가 재생된 것과 비교해 올 시즌에는 영상 수가 443건으로 훨씬 적음에도 총 79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KBL은 경기 외적으로도 흥행을 위해 애쓰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영상 아카이브 협약’을 통해 KBL 레전드들의 현역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민, 문경은, 현주엽 등 현역 KBL 감독들은 물론 서정훈, 허재 등 예능인 대열에 합류한 농구인들의 현역 시절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